

신안 '다섯번째 햇빛연금' 임자태양광발전소 준공

임자주민 3131명, 분기별 1인당 10만원~40만원 햇빛연금 혜택

신안군에서 다섯 번째로 햇빛연금이 지급되고 있는 임자면에서 지난 9일 99MW 임자태양광발전소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준공식에는 박우량 신안군수, 신안군의회 의장, 전남도의회 의원, 신안군의회 의원, 임자사회단체장 및 지역주민들이 참석했으며 발전사는 박재덕 해솔라에너지(주) 대표이사, 서건기 SK E&S 부사장, 이용걸 SMRE 대표이사, 유승희 PEAK ENERGY 대표이사 및 사업관계자 등 총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해수육장 행사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임자태양광발전소는 99MW 규모로 총사업비 1850억 원 중「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주민이 총사업비의 4%인 74

억 원을 참여했으며, 작년 10월 상업운전을 개시하여 지난 4월 26일 임자도 주민 3131명에게 분기별 1인당 10만 원~40만 원씩 첫 햇빛연금을 지급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이번 임자태양광발전소 준공으로 군민의 28%인 1만524명이 햇빛연금의 혜택을 받게 되며, 추후 2023년 비금도 200MW, 2024년 증도·신의 등 약 400MW 태

양광발전소가 추가로 건립될 예정으로 군민의 46%인 1만7236명이 햇빛연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재생에너지 보급과 주민들의 소득창출을 위한 정책으로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신안=박정래 기자



신안 임자태양광 발전사업 준공식

순천 추모공원 화장시설

외지인 사용자 내달부터 인상

순천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추모공원 화장시설 관외(외지인) 사용료를 인상한다.

시는 그동안 각종 운영 경비 인상 등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화장시설 사용료 인상이 논의됐으나, 서민경제 여건과 주민 가계 부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3년 인상 이후 10여 년간 사용료를 동결해왔다.

그러나 최근 연료비, 전기료 등 운영비 상승으로 화장시설 운영 수지가 날로 악화되어 사용료 현실화가 불가피해졌다. 이에 따라 시는 전국 평균 가격으로 관외(외지인) 사용료를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인상 내용을 보면 관내(순천시민) 사용료는 기존(15세 이상 5만8천 원, 15세 미만 4만5천 원)과 같지만, 관외(외지인) 사용료는 15세 이상 70만 원, 15세 미만과 개장 유류는 35만 원으로 인상했다.

또한 사망자가 순천시에 전입 기간이 6개월 미만이거나 등록기준지가 순천시인 경우에 관외가 아닌 특별로 적용하여 40만5천 원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여 시민들의 부담을 완화했다. 시에서 사망한 사람 중에 화장조건이 되지 않아 먼 지역까지 원장 화장해야 했던 불편함을 줄이고자 관외 범위를 확대하여 시에서 화장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순천=조순희 기자

강진 보은산 산책로 주변 심야에 멧돼지 퇴치한다

강진군이 고성사 가는 길 등 대표적 주민 휴식 공간인 보은산 일대에서 멧돼지 퇴치 활동을 갖는다.

군은 멧돼지 퇴치 활동은 지난해 9월에 이어 올해 들어 처음 실시하는 것으로, 강진군야생동물관리연합회 주관으로 진행된다.

최근 여름철로 접어들면서 저녁 시간대 보은산 산책로를 찾는 주민들이 많아짐에 따라 멧돼지 목격 신고가 늘어났고, 지난 해 9월에 실시한 포획 활동에 대한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아 가을철 포획 활동 전에 사냥개를 이용한 자발적인 퇴치 활동을 갖기로 했다.

퇴치 활동은 16일 오후 8시부터 이튿날 오전 2시까지 진행할 예정이며, 사냥개로 인한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보은산 입구에 안전요원을 배치해 주민의 보은산 출입을 통제하는 등 만일의 사태도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전재영 환경축산과장은 "멧돼지 포획 시간대에 보은산을 산책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달라"며 "하반기에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예방과 야생동물 퇴치 등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진=한홍수 기자

영암 선암·송내외마을 '전남 유기농 생태마을' 신규 지정

유기농업 확산·농촌 관광 명소 조성... 군, 5곳 보유

영암군 덕진면 선암마을과 송내의 마을이 '전라남도 유기농 생태마을'로 신규 지정됐다.

전남도는 유기농업 확산과 농촌 관광 명소 조성 등을 취지로 2026년까지 100개소의 유기농 생태마을을 지정·육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친환경농업 적합 △계초제 불사용 △생태환경 우수 △유기농 주민의식 △환경 친화적 건축물과 생활방식 등의 요건을 충족한 지역이 후보다.

농가 10호 이상, 친환경 농산물 인증면적 10ha, 유기농 비율 30% 이상의 조건도 갖춰야 한다.

두 마을의 지정으로 영암군은 총 5

곳의 유기농 생태마을을 보유하게 됐다.

영암읍 마호정마을과 화산면 신안정마을은 2018년에, 군서면 성지천마을은 지난해 지정됐다.

선암마을과 송내의마을은 앞으로 지정서 교부와 함께 다양한 지원을 받는다.

▲유기농 확대 생산·가공·유통·체험 시설과 장비 우선권 ▲5억 원 규모 유기농 생태마을 육성사업 ▲4,000만 원 규모 유기농 생태마을 활성화 사업 신청 자격 등이다.

선암마을은 농가 15호, 유기농 면적 27.7ha, 유기농 100% 마을로 벼, 녹차, 콩 등에서 친환경 인증을 얻었다.

마을 중앙에는 1979년 '한국재'에서 조성한 '덕진 녹차밭'이 있다.

이 유기농 녹차밭은 월출산국립공원의 풍광을 거느리고 있어 사진찍기 좋은 장소로 널리 알려져 있다.

송내의마을은 농가 18호, 유기농 면적 30ha이다.

조선시대 정자인 보물 2054호 영보정, 전남 문화재 247호 송양서원 등 역사문화자원이 가깝다.

한옥 숙박시설인 용두레 도농교류센터도 있어서 유기농에서 관광까지 아우를 수 있는 마을이다.

영암군은 지난달 두 마을의 유기농 생태마을 지정을 위해 신청서를 제출했고, 서류 심사 및 전문가 현장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이라는 결과를 얻었다.

영암=김형두 기자

목포시-신안군, 통합 효과분석 공동연구 용역 착수

통합 상생협력과제 도출·아젠다 발굴 등 추진



목포시는 최근 인구감소·고령화 등으로 인한 지방소멸시대를 맞아 신안군과 통합에 따른 공동발전 전략과 미래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목포·신안 통합 효과분석 공동연구용역'에 착수했다고 11일 밝혔다.

목포대학교 목포캠퍼스에서 8일 열린 공동연구용역 착수보고회에는 박홍률 목포시장, 박우량 신안군수, 목포신안통합추진위원, 시의원, 군의원, 간부공무원, 용역사 관계자 등 30

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연구용역의 추진방향, 연구방법, 연구절차 및 일정 설명 등을 보고받고 성공적인 통합 연구 용역을 위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목포시와 신안군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이번 용역은 양 시·군이 함께 진행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시·군은 용역을 통해 주민들이 통합 전 실생활에서 곧바로 통합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통합 상생과제를 발굴하고, 추진방안을 연구해 통합으로 한걸음 나아가자는 전략이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공동연구 용역 추진으로 통합의 상생과제, 실현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으로 통합의 필요성을 지역민들에게 전달해 목포·신안 광역 행정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통합 로드맵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신안군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14개 읍면 뿐만아니라 작은 섬까지도 찾아가서 지역민들의 우려사항을 용역에 반영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목포시는 이번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타지역 통합 사례분석과 지역민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행정통합을 위한 제도적 기반구축을 위한 비전과 아젠다 발굴을 통해 주민이 공감하고 상생 협력 가능한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목포=김근호 기자

광양, 네 자녀 이상 가정-기업·단체 간 자매결연

광양상공회의소와 협력... 지역 내 36개 기업 7920만원 후원금 기탁

광양시는 시청 집결실에서 '네 자녀 이상 가정-기업·단체 간 자매결연'이후 이상 가정 기탁식을 가졌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21년 처음 시행돼 올해 3번째로 진행되며,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다자녀 가정의 양육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사회 공동 육아 분위기 조성을 위해 추진됐다.

광양상공회의소의 협조로 총 36개 기업·단체가 동참해 네 자녀 이상 65가정과 자매결연을 하게 됐으며, 이날 행사에는 6개 후원기업이 참석했다.

결연 기간은 1년이며, 36개 기업·



단체의 후원금 7천920만원은 (재)광양시사랑나눔복지재단에 지정 기탁돼 복지재단에서 결연가정에 양육지원비로 매월 10만 원씩 지원하게 된다.

광양상공회의소 회장이자 기업체 대표로 참석한 ㈜드림피아 이백구 회장은 "지속적으로 자매결연을 함께 해주시는 기업과 신규로 참여해주시는 기업 대표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지역과 기업이 상생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앞으로도 시가 앞장서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아이 양육 부담을 덜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해 선도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광양=조순희 기자

곡성, 데이터기반행정 평가 '우수기관'

2년 연속 수상 영예... 특교세 4000만원 확보

곡성군은 행정안전부가 실시하는 '2022년 데이터기반행정 실태 평가'에서 2년 연속 최고 등급인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평가에서 곡성군은 공동활용 데이터 발굴, 데이터 분석 및 활용, 데이터 활용 역량 강화 등 모든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종합점수 95.62점으로 우수 등급을 받았다.

또 우수 등급을 받은 지자체 중 상위 24개에 포함돼 특별교부세 4000만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받는다.

곡성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데이터 활용을 활성화해 군민들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또한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행정업무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3년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에 데이터바우처 수요기반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곡성군은 지역소멸 대응특화 정책수립을 위한 데이터 융합 분석을 진행하며 데이터를 행정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기반의 정보화 기술 확산에도 노력하고 있다.

곡성=황상연 기자

함평-농촌진흥청, 영농현장 애로사항 해결 앞장

함평군과 농촌진흥청이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영농현장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함평군은 '영농현장 우수사례 발표회'가 지난 7일 농업기술센터에서 개최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발표회는 채소, 과수의 생육 이상과 각종 장애(장해) 등 영농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문제에 대한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농촌진흥청 영농기술지원원은 이날 발표자로 나서 과수 분야 애로사항 우수사례를 발표해 큰 호응을 얻었다.

영 위원은 "일선 시군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애로사항에 대해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것뿐 아니라 농가들의 시름까지도 함께 헤아릴 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영농현장의 문제들은 갈수록 다양화, 복잡화되고 있어 현장을 뛰는 시군 농촌지도사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함평군 농업기술센터의 영농현장 기술지원단은 농촌지도사와 농업연구사로 구성돼 있으며, 매년 4월부터 9월까지 월 2회(뽕재, 뽕재주 수요일) 영농현장을 찾아 영농기술을 지원해오고 있다.

함평=김영희 기자

담양,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확대

20만원→30만원 지급... 지원연령도 75세→80세까지

담양군이 여성농업인의 복지서비스 제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은 여성농업인에게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복지카드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각종 문화, 스포츠, 여행, 음식점 등 다양한 업종에서 연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군비를 추가해 지원금을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추가 지급하고 지원 연령도 현재 75세에서 80세까지 확대해 여성농업인의 실질적인 복지혜택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달 14일까지 읍면을 통해 추가접수를 시행하고 8월경 무기명 선불 카드로 지급할 예정이며, 읍면사무소를 통해서 배부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번기 가사부담 경감과 영농 집중을 위한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을 군비를 추가해 연 1회 지원에서 봄, 가을 각 1회로 확대 시행하며 농업인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군 관계자는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을 통해 많은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한다"며 "농업과 일상생활에 지친 여성농업인에게 다양한 복지혜택이 돌아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담양=조순희 기자

윤병태 나주시장, 7번째 마을좌담회 '눈길'

다도 강정마을서 저녁 시간 주민과의 대화·애로 청취



윤병태 나주시장이 일과 이후 다도면 강정마을을 찾아 주민들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경청했다.

나주시는 지난 8일 오후 7시 다도면 임정리 강정마을회관에서 윤병태 시장과 주민 간 7번째 찾아가는 마을좌담회가 열렸다고 11일 밝혔다.

마을좌담회는 저녁 시간 마을회관, 경로당 등에서 격의 없는 대화 자리로 진행된다. 크고 작은 마을 현안, 건의 사항을 경청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민선 8기 소통 시책이다.

윤 시장은 해묵은 마을 현안, 생활고충이 있지만 먼 거리, 거동 불편, 바쁜 생업 등으로 시청을 방문하지 못하고 오랜 기간 불편을 감내해왔던 주민들의 고충 해소를 위해 매달 1회씩 '오지 마을을 우선으로 방문하고 있다.

좌담회에는 유병태 마을위원장, 강재석 노인회장, 서광순 부녀회장을 비롯한 주민 30여명이 참석했다.

좌담회를 통해 주민들은 '시도 16호선 다도간 진입도로 개설 및 나주호 돌래길 조성사업 진행 상황', '나주호 수변공원 수목 이식·잔디 평탄화', '마을배수로·하수관 복개', '마을 안길 도로 개선', '폭우 대비 사방벽 조성', '산책로 휴식 의자 설치', '영농 폐기물 아작·수거 공간 마련' 등을 건의·요청했다.

윤 시장은 "건의하신 사항은 한 건도 빠짐없이 현장을 확인해서 최대한 해소해가도록 하겠다"며 "청정 못하고 오랜 기간 불편을 감내해왔던 주민들의 고충 해소를 위해 매달 1회씩 '오지 마을을 우선으로 방문하고 있다.

나주=서철훈 기자